

Vol.25 August 2014

# Canada Wood Newsletter

## 특집기사

캐나다우드 디벨로퍼 미션  
여행을 마감하면서...

## 해외 목조건축 사례

Wood Innovation and  
Design Centre (WI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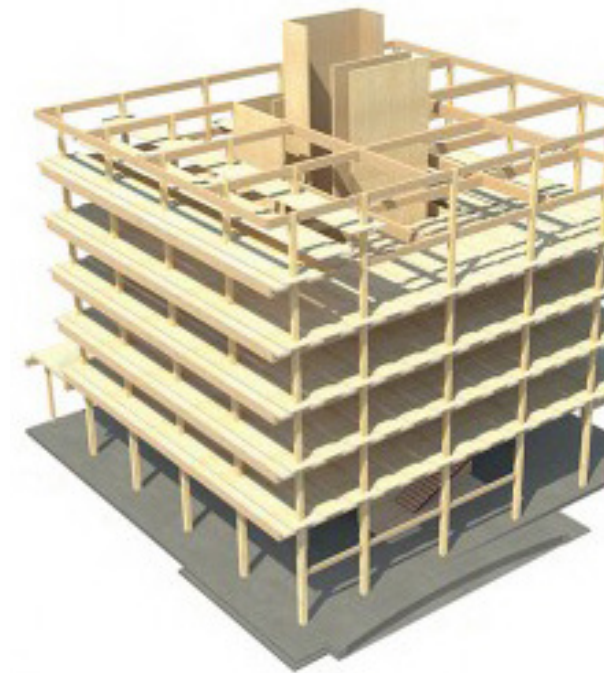


Canada Wood  
캐나다우드

서울시 서초구 매향로 54-1, 3층  
T. 02-3445-3835 F. 02-3445-3832

[www.canadawood.or.kr](http://www.canadawood.or.kr)





# Contents

- 03 **특집기사**  
캐나다우드 디벨로퍼 미션  
여행을 마감하면서...
- 08 **해외 목조건축 사례**  
Wood Innovation and  
Design Centre (WIDC)
- 10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4월 ~ 7월 활동사항
- 12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8월 ~ 11월 활동계획
- 12 **Did you know**

## [전시회 일정]

- |   |  |
|---|--|
| 8.16(토) ~ 8.19(화) / ETEC<br>제21회 서울국제건축박람회  | 10.17(금) ~ 10.19(일) / ICC Jeju<br>2014 제주경향하우징페어 |
| 8.30(토) ~ 9.2(화) / KINTEX<br>제36회 MBC 건축박람회 | 10.21(화) ~ 10.24(금) / COEX<br>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
| 9.25(목) ~ 9.28(일) / BEXCO<br>2014 부산경향하우징페어 | 10.23(목) ~ 10.26(일) / KDJ<br>Center              |
| 10.2(목) ~ 10.5(일) / EXCO<br>2014 대구경향하우징페어  | 제9회 KBC 건축박람회                                    |
| 10.9(목) ~ 10.12(일) / KOTREX<br>제7회 대전건축박람회  | 10.29(수) ~ 11.1(토) / COEX<br>한국건축산업대전 2014       |

[표지사진: Banff Recreation Centre, Alberta, Canada]





## 특집 기사

# 캐나다우드 디벨로퍼미션 여행을 마감하면서...

### 나무의 나라 캐나다.

2007년 1월 캐나다우드 목조건축 기술연수 (Advanced Technology Construction Training)를 다녀온 뒤 7년만에 다시 방문하게 된 캐나다. 밴쿠버, 펜틱턴, 켈로나, 버넌, 밴프, 캘거리 지역을 방대하게 다니는 흥미로운 여행이었다. 비록 이동을 많이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다양한 곳을 답사할 수 있었기에 좋은 경험이 되었다.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그 중 내게 감동을 주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한다.

1. CLT(Cross Laminated Timber)에 대한 궁금함.
2. 지속가능한 건축을 실천하는 나라.
3. 공공건축의 목구조적용사례 및 완성도.
4. 리치몬드 올림픽스케이팅장 오벌의 감동.
5. 강아지들의 천국, 걷고 싶은 공원.

이렇게 5개의 꼭지를 가지고 이번 여행을 마무리 하려 한다.







## 1. CLT(Cross Laminated Timber, 직교집성재)에 대한 궁금함.

이번 여행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CLT(Cross Laminated Timber)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미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학목재에 대한 궁금함이다.

그러한 궁금증은 이번 여행에서 CLT를 적용하여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의 강연과 공장견학 및 실제 지어진 곳을 방문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CLT의 특성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다층목구조 및 캔틸레버 구조에서는 CLT가 꼭 필요한 공학목재임을 알게 되었으며, 인건비가 비싼 캐나다에서는 CLT를 콘크리트대용으로 사용함으로 공사기간의 단축 및 경제적인 구조로 사용되고 있음은 역시 나무의 나라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CLT구조 3층 상업시설, Kelowna〉

1. Norwich – Open Academy, UK  
(CEI Architecture의 Nick Bevanda 세미나 중에서)
2. 캔틸레버 구조인 외부채양
3. CLT 3층 목구조 외관
4. CLT슬라브 천장 노출 배관의 모습
5. 미래의 40층 목조 업무용 건물, CEI Architecture



캐나다에서 본 CLT 적용 사례는 기둥, 보(글루램)구조에 슬라브용도만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벽체의 구조 및 내화성능에 대한 연구가 끝나 있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기에 실행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CLT의 면을 아름다움을 그대로 마감재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번 견학에서 본 CLT구조의 3층 상업시설에서는 단지 슬라브구조만을 해결한 상황이어서 좀 더 목구조미를 돋보일 수 있는 디자인 및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CLT는 유럽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공학목재이지만, 캐나다임산물연구소(FPIInnovations) 및 Timber Engineering, 설계사무소등에서 CLT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렇게 연구된 결과들이 공공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으로 목재사용의 권장 및 의무화(정부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나무를 사용하여 함)로 인해 연구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2. 지속가능한 건축을 실천하는 나라.

캐나다의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은 지속가능한 건축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본다. 이는 BC주의 “목재 최우선 법”이라는 정부의 방침도 커다랗게 작용하리라 본다.

정부에서 투자한 건축물은 목재를 최우선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법이다. 강제조항이기에 공공건축물은 목재로 지어야 하며, 그러기에 정부기관, 연구소, 엔지니어, 건축가들의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함께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에 방문한 오키나간 대학의 짐 패티슨 센터(Jim Pattison Center of Excellence)와 밴프레이크이션 센터(The Fenlands Banff Recreation Center) 그리고 UBC의 지속가능성 빌딩(Centre for Interactive Research on Sustainability), 지구과학관(Earth Sciences Building) 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키나간 대학의 짐 패티슨 센터는 학생들의 교육 목적까지 고려한 설계가 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지열시스템의 사용현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설비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노출시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게 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건축물이 완성 되었지만 아직도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1. 짐 패티슨 센터

2-3. 교육적 목적으로 노출된 배관들

4-5. 열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내부와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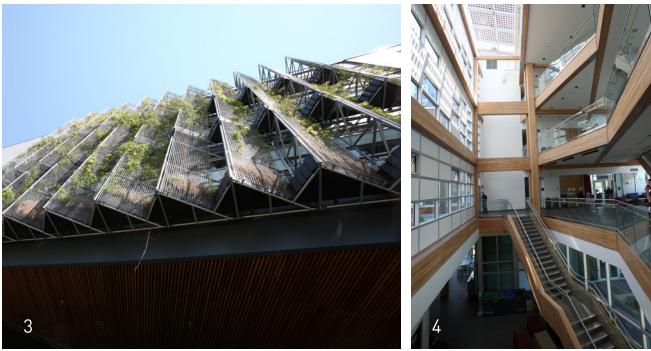


밴프 레크레이션 센터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사용되었던 목재를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재 사용하여 디자인과 구조에 완벽하게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목재를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목구조의 진정한 지속가능함을 실천함이 아닐런지.

UBC의 지속가능성 빌딩과 지구과학관은 목구조의 가능성과 넷제로로 가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적용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2



3

4



- 1. UBC 지구과학관
- 2. 밴프 레크레이션센터
- 3-4. UBC 지속가능성 빌딩
- 5. 휘슬러 공공도서관
- 6-7. 노스밴쿠버 시청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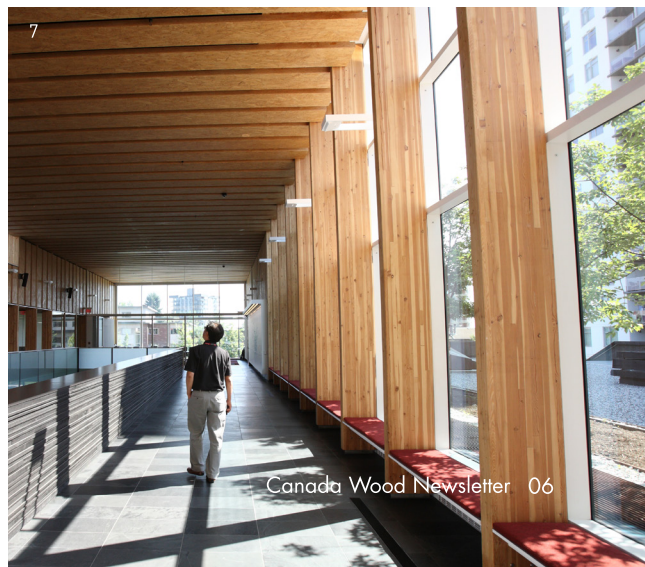
### 3. 공공건축의 목구조 적용사례 및 완성도

7년 전 겨울, 구조체가 만들어 지고 있었던 휘슬러 공공도서관(Whistler Public Library)은 완성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동계 올림픽을 치르고 휘슬러는 더 근사한 장소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란 이런 곳이어야 함을 알려 주는 듯 품격과 환경이 잘 조성되어진 멋진 곳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옛 공공도서관은 갤러리로 활용하여 신, 구가 조화롭게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MGA(Michael Green Architecture)가 설계한 노스밴쿠버시청(North Vancouver City Hall)이야 말로 건축가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건물을 보고 나오는 순간 “오래된 미래” 라는 책 제목이 떠올랐다. 옛 것과 현재 그리고 미래...



6



7



#### 4. 리치몬드 올림픽스케이팅장 오벌(Richmond Olympic Skating Oval)의 감동.

2010년 세계를 떠들석 하게 만든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상화선수가 생각 나는 그곳. 그곳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경기장을 보고 나서 정말 멋진 곳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벌 경기장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서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경간이 100m에 달하는 14개의 대형 집성재 아치로 구성된 지붕 구조와 소나무 딱정벌레의 병충해를 입은 나무를 구조에는 이상이 없음을 입증 하듯이-규격재로 만든 V자 모양의 목재웨이브 패널로 구성된 멋진 건축물이다. 올림픽이 끝난 현재 주민 운동시설로 잘 사용되고 있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 사용계획이 처음부터 시민이 참여하여 올림픽 이후의 사용에 대한 계획을 함께 고민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는 점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주제인 저탄소, 친환경의 실천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1-2. 리치몬드 오벌 빙상경기장  
3-5. 캘로나 공원



#### 5. 강아지들의 천국, 걷고 싶은 공원.

이번 캐나다 여행은 이동이 많아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반대로 많은 지역을 다니게 되었고 머물렀던 호텔들도 다양하여 신나기도 하였다. 특히 두 번째 투숙한 델타그랜드오카나간리조트(Delta Grand Okanagan Resort)호텔 인근 공원의 감동이다.

이곳은 이제 막 환경정비를 하는 곳이라 캐나다의 변방이라 볼 수 있다. 늦게 도착하게 되어 다음날 산책을 하면서 놀란 것은 공공시설인 공원이다. 이 변방에 조성된 공원이 너무나 근사하게 계획된 것을 아침 산책을 하면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말 걷고 싶은 공원이고 상쾌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또한 반려동물인 강아지에 대한 배려도 잘 디자인 되어 있었다. 그 이름하여 Doggy Water.

캐나다는 공공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잘 반영된 나라이다. 7년 전 처음 방문 때 편안함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편안함이 연구와 배려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임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나무의 나라 캐나다, 걷고 싶은 나라, 공공의 배려가 잘된 나라...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는 숲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나무로 하는 작업을 좋아한다. 목조건축이 편안함을 주는 것은 그 집이 나무로 만들어졌기에 그런 것이라 알고 있다. 이제 지구촌 환경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건축물은 목구조가 반영된 진정한 친환경 건축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도심 속에 산책하고 싶은 공원들이 잘 만들어져서 걷고 싶은 나라가 된다면 건강과 환경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으리라 본다. 캐나다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 또한 나무의 나라이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몇 년 뒤 다시 방문하게 될 때는 어떤 것이 감동을 줄 것인지... 숙제로 남기고 이번 여행을 마감하려 한다.

2014년 8월 4일  
강승희 (노바건축사사무소 대표)





## 해외 목조건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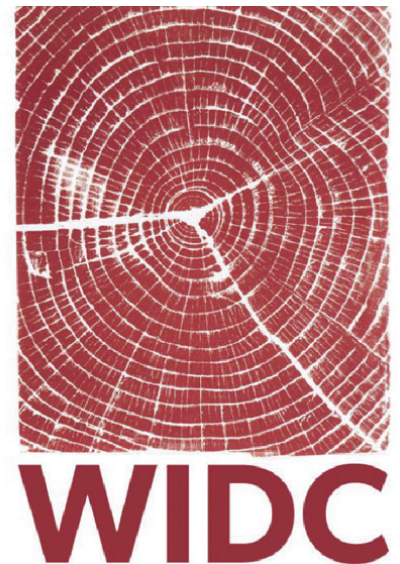
# Wood Innovation and Design Centre (WIDC)

캐나다의 목조 건축물 설계, 시공, 목재제품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을 보여주는 북미에서 가장 높은 목조건축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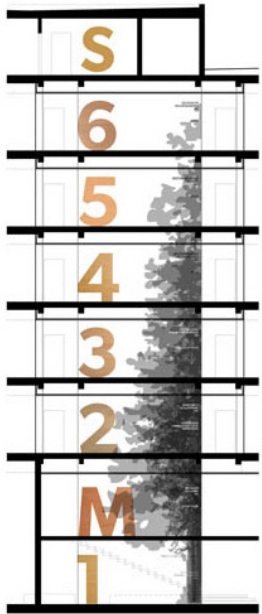
### 건물 개요

- 건축 설계 : MGA (Michael Green Architecture)
- 구조 설계 : Equilibrium Consulting
- 위치 : 프린스 조지,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
- 용도: 대학교 (University of Northern British Columbia, UNBC)  
+ 업무시설 등의 복합 용도
- 층수 : 6층 + 옥탑층
- 높이 : 29.25 미터 (90 피트)
- 주요 구조재 : 글루램 기둥 및 보, CLT, LVL
- 법규에서 요구하는 구조, 내화, 내진 성능 만족
- 2013년 착공, 2014년 가을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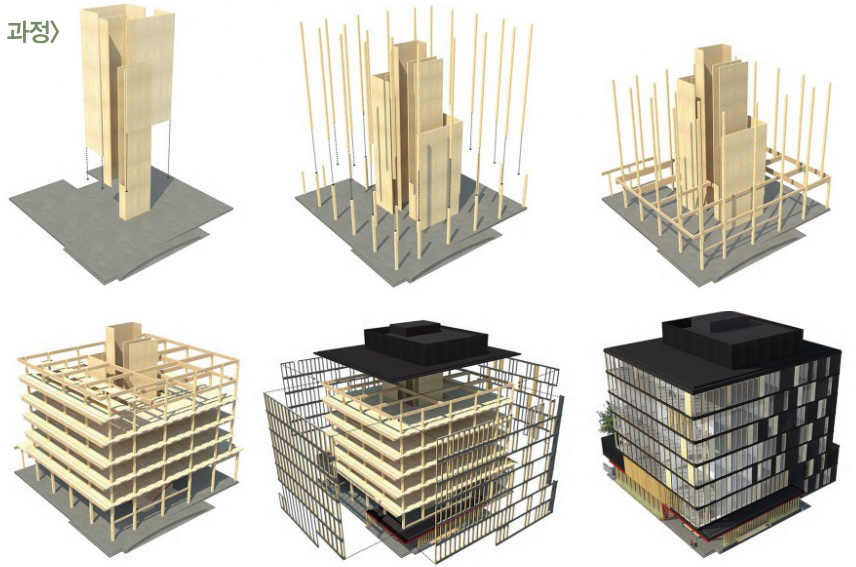
1. WIDC 내부 전경  
2. WIDC 외부 전경  
(이미지 출처: MGA)







〈공사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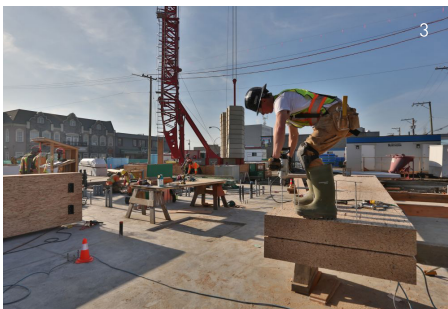
WIDC의 층수 구성 : 6층 건물이지만 8개 층에 해당하는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음

글루램 기둥-보 구조와 엇갈려 배치된 CLT 바닥  
(이미지 출처: MGA)



1. 2층 바닥과 코어 공사 중의 사진
2. CLT 코어 공사
3. 부재의 현장 가공
4. 연결 철물
5. 공사 중의 WIDC

(출처: naturallywood.com)



〈참고 비디오〉

- 1) Showcasing B.C.' s Expertise: An Introduction to the Wood Innovation and Design Centre (WIDC)
  - You Tube : <http://www.youtube.com/watch?v=zxW5Qyu184U>
- 2) Time-lapse : Construction of the Wood Innovation& Design Centre (2013년 12월까지)
  - You Tube : <http://www.youtube.com/watch?v=Aal7y5-qvq8>



#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4월~7월 활동사항

## 4월 5일

### 우드유니버시티 WBI (목조공동주택 설계-시공-감리 전문가과정) 15기 개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후원하는 우드유니버시티의 'WBI-목조공동주택 설계,시공,감리 전문가과정' 15기가 4월 5일 개강하였다. WBI과정은 8월 16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국내외 목조건축관련 법규 및 기준에 준하여 경골목구조를 포함한 목조건축의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우드유니버시티의 교육 이수자는 캐나다우드가 주최하는 캐나다 현지 목조건축 기술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과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WBI(목조공동주택 전문가과정) 교재



개강일에 축사를 하는 송재승 원장

## 4월 24일 ~ 27일

### 퀘백목재수출협회(Quebec Wood Export Bureau) 서울가구박람회 참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캐나다우드 소속 협회 가운데 하나인 퀘백목재수출협회(Quebec Wood Export Bureau, QWEB)가 2014 서울 가구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제35회 MBC 건축 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퀘백 목재수출협회 브루노 꾸뛰르 (Bruno Couture Hardwood & Flooring Manager)는 박람회 기간 동안 퀘백주에서 생산되는 목제품에 대한 책자를 배포하며 홍보하였다. 퀘백목재수출협회는 퀘백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목재 제품에 관한 정보와 기술 및 홍보 자료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7개 분야의 2백 개가 넘는 제조업체들을 대표하고 있다.

웹사이트 : [www.quebecwoodexport.com](http://www.quebecwoodexport.com)



퀘백목재수출협회(QWEB) 부스 전경



부스에서 배포한 퀘백주에서 생산되는 목제품 안내 책자

## 5월 3일

### 우드유니버시티 WBI-15기 목조건축 자재업체 견학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가 후원하는 목조건축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우드유니버시티는 WBI-목조건축 설계, 시공, 감리 전문가 과정 15기 교육생의 목조건축 자재업체 견학을 위해 삼익산업 덕평물류센터를 방문하였다. 교육생들은 목조건축 자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용용도, 구입방법 등을 알게 되었고 목조주택 자재전시장을 둘러보며 구조재와 창호, 마감재 등 다양한 자재를 견학하였다.



물류창고를 지나가고 있는 교육생들



목조주택 자재전시장 견학

## 5월 11일 ~ 16일

### KBS 다큐멘터리 제작팀 캐나다 방문

KBS는 캐나다우드의 지원으로 올해 산의 날 (10월 18일)에 방영하는 "한 그루의 기적 - 숲에서 희망을 찾다 (가제)" 라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5월 11일부터 16일 까지 1주일 간 산림의 강국인 캐나다를 방문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제작팀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다양한 임산업 현장, 시설, 공원, 박물관, 목조건축물 등을 방문 촬영하고, 캐나다 산림청 관계자와 연구원, 캐나다 원주민, 공원 방문객 등을 인터뷰하여, 캐나다의 산림정책과 경영사례를 통해 한국의 숲이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취재 하였다.



벌목 및 재식림 현장 취재



국립공원 산림 탐방객 인터뷰

## 5월 28일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특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정태욱 대표는 5월 28일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60명에게 특강을 하였다.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에서 정태욱 대표는 '건축재료로서의 목재 특성' 이란 주제로 건축학과 학생들에게 목재의 특성과 목구조재를 사용한 사례, 건축재료로서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등을 강의하였으며, 강의 후 학생들의 질문 공세로 목구조재와 목조건축에 대한 높은 호응을 알 수 있었다.



한양대 건축공학과 학생들에게 강의 중인 정태욱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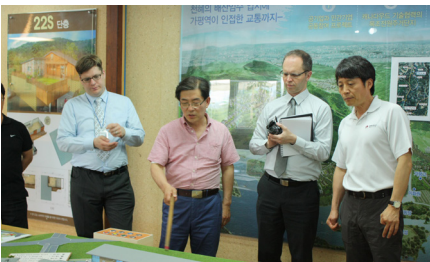


## 6월 19일 ~ 21일

### 캐나다 천연자원부 (NRCan)

#### 프랑소아 사양 (Francois Saillant) 방한

캐나다 연방정부 천연자원부의 프랑소아 사양 (Francois Saillant, Senior Market Development Policy Analyst of Canadian Forest Service, Natural Resources Canada)은 캐나다 천연 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캐나다우드의 업무 검토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방한 기간 동안 경기도시공사의 목조건축 단지 및 커뮤니티센터 현장을 알버타주 한국사무소 대표와 함께 방문 하였고, 국내 건축사와 미팅을 통해 국내 목조 건축의 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미디어우드에서 주최한 목조건축 세미나에도 참석하는 등 2일 간의 짧은 방문 기간 동안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출국하였다.



경기도시공사의 목조건축 단지 브리핑

## 6월 20일

### 북한강 동연재 커뮤니티센터 캐나다산 규격재 기증식

캐나다 알버타주는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강 동연재 단지의 랜드마크가 될 커뮤니티센터의 지붕 장선 및 2x4 지붕 데킹, 우드월 등 경골목구조 부분에 적용될 캐나다산 규격재를 지원하였다. 가평 달전리 현장에서 열린 자재 기증식에는 캐나다 연방정부 천연자원부 소속의 공무원, 알버타주 한국사무소 대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대표와 경기도시공사와 드림사이트 코리아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자재 기증식에 참가한 캐나다와 한국 관계자

## 6월 21일

### '2014 코리아우드쇼' 세미나 참가

캐나다우드는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4 코리아우드쇼'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세미나에 참가하여 '대규모 및 고층 건물에서의 목재 이용'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세미나를 위해 특별히

초청된 캐나다우드 중국사무소의 캐리 핵비스트(Kerry Haggvist, Canada Wood China)는 목구조 시스템을 경골목구조, 중목구조, CLT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복합 구조 및 최신 자재와 부재 결합 방법, 그리고 공학의 발전이 새로운 공법과 공학목적 제품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자재인 규격재와 구조용 집성재 등으로도 어떻게 대규모 및 고층 목조 건축물을 가능케 하는 가를 소개하였다.



발표 주제를 소개하는 캐리 핵비스트



발표 자료 중 대표적 목구조 시스템의 소개

## 6월 30일 ~ 7월 4일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진주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제3회 경골목구조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경남과기대의 공학교육혁신센터와 인테리어재료공학과, 건축학과 교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서 5일간 진행된 제3회 워크샵은 두 학과 34명의 남녀 학생들이 참가하여 건축자재로서의 목재와 그 장점, 목조 건축 시스템, 특히 경골목구조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2개 동의 플레이 하우스를 직접 시공하는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벽체를 제작하고 있는 참가자들



장마 비에도 불구하고 실습을 진행하는 학생들

## 7월 6일 ~ 17일

### 2014 캐나다우드 디벨로퍼 미션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국내 디벨로퍼, 건축사, 시공사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 22명과 함께 11일간 캐나다를 방문하는 미션을 개최하였다. 시찰단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오키나간 호반에 있는 도시 펜텍턴, 캘로나 그리고 밴쿠버, 휘슬러, 알버타주의 밴프와 캘거리를 방문하여 캐나다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목재 제품의 생산, 그리고 목조건축의 시장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체재소, CLT공장, 프리패브 공장, 다양한 목조건축 및 복합건물과 목조 단독 및 저층공동주택 등을 견학하였다. 이번 미션참가를 계기로 참가자들이 국내에서 활발한 목조건축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캐나다우드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 목구조 프로젝트를 설명 중인 캐나다 건축사 Nick Bevanda



목구조 건축 현장을 견학중인 참가자들

## 7월 28일 ~ 8월 1일

### 경골목구조의 내화 차음 품질시험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경골목구조 벽체와 바닥의 내화구조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의 갱신에 따른 재인정 절차를 USG 보랄 석고보드와 같이 한국목조건축 협회와 한국하니스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벽체의 차음구조 품질시험을 일산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차음구조 품질시험을 위해 준비된 시험벽체



#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8월~11월 활동계획

## 8월 14일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경골목구조 워크샵 특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정태욱 대표는 경희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진행되는 경골목구조 워크샵의 이론교육에 참여하여 건축학과 학생들에게 특강을 할 예정이다. 경희대학교 건축학과는 2009년부터 캐나다우드와 함께 경골목구조 워크샵을 매년 진행해 왔으며, 워크샵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 및 시공한 목구조 모형물은 경기 지역 복지시설과 공공시설 등에 기증되어 사용되고 있다. 캐나다우드는 이번 워크샵의 특강 외에 참가 학생들에게 캐나다우드에서 발행한 기술 책자 등도 지원하여 도움을 줄 예정이다.

## 9월 20일 ~ 28일

**2014 부산 우드 페스티벌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함께 나누는 나무'라는 슬로건으로 동서대학교와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와 공동으로 '2014 부산 우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부산 우드 페스티벌은 '2014 부산경향하우징페어' 기간에 맞춰 BEXCO 옥외전시장에서 3개 대학 건축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경골목구조주택에 대한 이론교육 및 Play House 6동을 실물 제작하는 실습을 하게 된다.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이벤트를 통해 에어 캐나다, 에이앤뉴스 등 후원사에서 준비한 캐나다 목조건축 2주 연수 외 다양한 부상이 지급되며, 실습 후 완성된 Play House는 지역 복지시설에 기증된다.

## 9월 25일 ~ 28일

**2014 부산경향하우징페어 참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14 부산경향하우징페어에 참가하여 목조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발행한 목조건축 기술서적을 무료 배포하고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홍보하며, 페어 기간 중에 '2014 부산 우드 페스티벌'과 목조건축 설계-구조 워크샵, 부산 및 경남지역의 목조건축 관계자 초청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 9월 26일

**부산 목조건축 설계-구조 워크샵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부산 촉가회와 공동으로 부산 및 경남지역의 건축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캐나다우드에서 개발한 목조건축 설계 디자인-툴(Architectural Design Tool)인 목조건축 표준 상세 CAD파일 CD를 활용한

목조건축 설계이론과 목조건축 구조 디자인-툴(Structural Design Tool)인 WoodWorks Design Office Software를 활용한 목조건축 구조이론을 소개하는 목조건축 설계-구조 워크샵을 개최한다.

워크샵에 참가자에게는 목조건축 표준상세 CAD파일 CD 및 캐나다우드 기술 책자 등을 배포하여 목조건축 설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참가신청 필수)

## 10월 4일

**우드유니버시티 WDO(목조건축 구조 설계 이론 및 Software 실무과정)-13기 개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가 후원하는 목조건축 전문가양성 교육기관 우드유니버시티의 WDO(목조건축 구조설계 이론 및 Software 실무과정) - 13기가 양재동 교육장에서 10월 4일부터 시작된다. 우드유니버시티의 WDO과정은 목조건축 구조설계 전문 과정으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목조건축 구조 및 설계 할 수 있는 Software 'WoodWorks Design Office' 교육용 버전을 무료로 제공받아 프로그램 사용법과 실습을 통해 목조건축 구조 설계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드유니버시티 홈페이지 참조 ([www.wooduniversity.or.kr](http://www.wooduniversity.or.kr))

## 10월 18일

**북한강 동연재 커뮤니티센터 개원식**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북한강 동연재의 커뮤니티센터 개원식이 10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개원식과 더불어 동연재 단지과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캐나다의 기술 및 자재 지원을 기념하기 위해 센터 명칭을 캐나다의 상징인 단풍나무를 명칭으로 사용하여 "메이플 홀"로 명명하는 행사가 같이 진행된다. 또한 커뮤니티센터에는 캐나다우드의 전시관이 운영되어 캐나다의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목재의 장점, 그리고 캐나다산 목재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커뮤니티센터의 투시도

## 10월 29일 ~ 11월 1일

### 2014 한국건축산업대전 참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주최로 COEX에서 열리는 '2014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참가하여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부스를 방문하는 건축사 및 건축관련 전문가에게 목조건축에 대한 기술 정보와 캐나다산 구조재를 소개하고 다양한 기술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건축산업대전 기간 중 코엑스에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건축사 실무교육과 목조건축 설계-구조 워크샵도 개최하여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제작한 '목조건축 표준 상세 CAD파일 CD'도 참가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 11월

### 캐나다임산물연구소(FPIInnoviations)

### 지잉 왕(Jieying Wang) 박사 방한

올해 11월에 캐나다임산물연구소(FPIInnoviations)의 지잉 왕(Jieying Wang)박사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요청으로 방한하여 연구 및 세미나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캐나다임산물연구소 지잉 왕 박사와 경남과학기술대학의 나종범 교수는 2010년부터 캐나다 CSA 080 방부처리기준에 준하여 생산된 S-P-F와 Hem-Fir 방부목의 한국기후-환경조건에 대한 성능시험을 진주에서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로 4년차를 맞는 Field Inspection을 위해 지잉왕 박사는 진주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세미나를 통해 연구 내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Did you know

17 : 지난 5년 동안 지어진 8층 이상의 목조건축물의 숫자

스웨덴,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호주 :

이들 목조건축물이 지어진 국가들

\*사진 출처 : Summary Report: Survey of International Tall Wood Buildings, [naturallywood.com](http://naturallywood.com)

